

월요일단



정 구 혈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지속가능 발전 위한 선진 스포츠 정책 기대한다

지난달 민선 제주도 체육회장이 선출되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깜깜이 선거'니 '짹짹 선거'니 '기을어진 운동장 선거'니 하며 많은 우려와 선거 후유증이 예상되었으나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스포츠 정신에 걸맞게 결과에 깔꿈하게 승복하며 일관된 미래를 위해 바램직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였으나 당선자의 소감대로 이제는 승패를 떠나 제주 체육인들의 힘을 모아 제주 체육이 지속가능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한다. 첫째, 선거 공약이 중심이었던 엘리트 체육에 관한 대중요법적 공약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시그니처 스포츠 몇 종목들을 선전해 지원하는 일은 바람직하나 전국체육대회 중상위권에 도달시키겠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발상이며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스포츠는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관리만 하면 될 것이다. 이제 선출된 회장단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평생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문화 창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만의 지역적,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레저 스포츠들이 발굴되고 육성되어 제주도 사회 스포츠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도민 복지를 견인하게 되어

도민 삶의 질이 풍성해지게 된다. 둘째, 제주 스포츠 산업은 1차 산업, 관광산업에 이어 제주의 제3 지주 산업으로 자리 매김이 가능하며 다른 산업 분야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하며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업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미미해진 전지훈련 적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고,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련된 분야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기여함이 필요하다. 도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SOC확충을 위한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세계적 뉴스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고려할 때 원도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시안 경기대회 유치를 현실화하면 좋겠다. 사회 간접 시설은 물론 낙후된 스포츠 시설 인프라들을 국제규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호기일 수 있다.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인력들을 생활스포츠와 접목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생활 스포츠 현장에 투입해 시설을 관리하고 기술을 지도하며, 도민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돕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시 체육회와 원만하고 긴밀한 협력구조를 갖춰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스포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스포츠 발전 기금을 전 방위로 모금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불법숙박영업, 불공정 범죄행위다



박 중 옥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은 관할 자치단체에 영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최근 제주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건물 등에서 등록·신고없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트렌드로 내세워 SNS나 공유 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숙박영업시설은 공중위

생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시설의 허가기준과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게 되지만 불법숙박업소는 당연히 건축, 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배너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TF를 상시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자신이 머물게 될 숙박업소가 정식등록업소이며 안전점검을 마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법숙박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세금 탈세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는 불공정한 범죄행위를 맞이하는 안될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민주당 총선후보 공천경쟁 막 올라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출마자들의 공천 심사에 활용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착수.

제주지역구의 경우 제주시유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서귀포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적합도 조사 대상이며 전략공천지로 분류된 제주시갑은 대상에서 제외.

공천 심사에서 적합도 조사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는 만큼 출마자들은 치열한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 부미현기자

흡연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제주보건소가 흡연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해 1만7000여 개소의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연중 흡연 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에 따라 PC방·공항·의료기관 등 민원다발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금연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 백금탁기자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야간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제주상의, 도민토론회 연기

○...제주상공회의소가 오는 11일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0년 경제활성화 도민 토론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응 차원에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2일 제주상에에 따르면, 당초 도민토론회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분야별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 제주상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제주도는 '심각' 단계로 인지, 대응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토론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사설

신종 코로나, 과할 정도로 적극 조치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국내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보다 확진자가 3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도 우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여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50대 중국인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체류 당시 잠복기로 추정되지만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1일 오후 국토교통부 제주항공청으로부터 지난 달 21~25일 제주여행을 한 중국인 관광객 유모(52)씨가 귀국 다음날(26일) 발열증상을 보이기 시작, 30일 최종 확진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양저우에 거주하는 유씨는 딸과 함께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유씨의 체류 당시 동선을 파악한 결과 제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관광을 했습니다. 또 관광지를 비롯해 숙소와 카페, 식당 등이 주요 동선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유씨가 묵은 숙소에 역학조사반을 보내 CCTV를 확인, 숙소 직원 5명을 '집중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민이 우한 폐렴 확진자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잠복기 중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류 당시 증상이 없던 문제의 중국인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무사증(무비자) 일시 중지 및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를 정부에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려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현실화

도심의 허파와도 같은 도시공원이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민간특례사업이 현실화했습니다.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고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도시숲 감소와 도심 난개발 우려에도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2곳의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제주도 오동봉공원은 (주)호반건설의 도내 4개사가, 중부공원은 제일건설(주)의 도내 3개사로 결정됐습니다. 민간특례개발 방식은 부지를 매입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녹지공간이 줄어든다는 다른 도시숲 감소와 생활환경 악화, 난개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도 선정된 업체들은 공동주택을 짓고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동봉·중부공원 2곳에는 아

파트 2426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급이 현실화되면 현재 1000호 넘는 미분양 물량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주택시장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니다.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의문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난이 현실적 이유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몰 도시공원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맞닥뜨린 현안입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개소에 이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임은 물론입니다. 때문에 자체 재원 확보노력은 물론 국비 지원과 공공개발 방식 도입 등 다각도로 정교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재정부담 때문에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간특례개발 추진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 고

강성범(서귀포경찰서 근무) 어머니 **제주고씨 원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4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5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본관) 2층 3분향실
▶장 지: 하효 마을공동묘지

아 들 강성범 며느리 고희심
성종 김정순
딸 강성열 사 위 오주필
성복 (예) 현영철
성순 양정필
애선 조광래
성희 김성은
장 손 강병진

※ 연락처: 강성범 010-6692-3064
강성종 010-6693-3088

부 고

이기언(前 제주어류양식수협 상무) 어머니 **제주양씨 정자(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일 21시 4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3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4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해안동 선영

남 편 이 덕 성
아 들 이 기 언 (예) 이 기 흥
며느리 김 옥 경
양 영 미
딸 (예) 이 효 숙 (예) 이 정 숙

※ 연락처: 이기언 010-7928-0044
부민장례식장 742-5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태순(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3일

아 들 김두행 며느리 이영숙
두석 윤여진
병수 고현자
딸 김미성
정선
정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